

#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심리

## A Study on Suicide Mentality in Adolescent Novels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살 심리를 연구하였다.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심리는 십대들이 자살하는 다양한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도피 심리,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차별심리, 보상심리, 보복심리 등이 나타난다. 때론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 I. 서론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원인은 신체적 요인보다는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크다. 정신장애로 인한 우울증, 집단 따돌림, 성적 및 입시 스트레스, 한부모 가족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언론 및 텔레비전 등에 나타나는 자살 미화 등은 그러한 예이다. 또한 자아의식이 뚜렷해지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살은 급증한다. 주로 청소년이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가족과 학교 또래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자살의 특성은 충동적이며 분명한 동기가 있다. 때로는 모방자살의 경향이 나타난다.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분노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소설 관련 논문들에 나타난 ‘자살’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몇몇 작품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자살 심리’를 다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소녀들의 자살 심리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2009)을 중심으로 또래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2008)이란 작품을 다루면서 가정폭력에 따른 소녀들의 자살 심리가 어떤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집단 따돌림과 자살 :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은 주인공 천지의 자

살을 다루고 있다. 천지는 평범하고 소심한 열네 살 소녀이다. 그녀는 자살하였으며, 죽기 전에 자신을 미워한 또래 소녀들과 자신을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다. 언니 만지는 동생 천지가 자살한 이유를 알기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천지와 가까웠던 화연이 가해자였음을 알게 된다. 또한 천지의 편지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천지의 주변인물들 또한 천지의 자살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장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천지를 통해 소녀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소녀들은 또래집단에서 고립될 때 삶의 위험을 느낀다. 천지는 전학 온 아이이기 때문에 소녀들의 무리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런 천지에게 살갑게 다가선 소녀는 화연이다. 문제는 화연이 또래의 소녀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희생자인 천지에게 ‘관계적 공격’을 행하는 데 있다. 관계적 공격은 “관계나 수용, 우정, 소속감의 느낌을 훼손(혹은 훼손하겠다고 위협)하여 타인을 해치는”<sup>[1]</sup> 것이다.

레이첼 시먼스에 따르면, 소녀들은 공격하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표면적인 착함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출렁이며 친구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sup>[2]</sup> 미라는 천지에게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린다고. 화연이는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릴 애라고, 발표 따위로 꿈쩍도 안 할 애라고.”<sup>[3]</sup>라고 말하면서 천지가 화연이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자살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로 볼 때, 천지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따돌림으로부터 자신을 조연해줄 친구가 부재하였던 것이다.

소녀들의 자살 심리는 『우아한 거짓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적 공격에서 비롯된다. 소녀들은 집단 따돌림

같은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고통을 경험하면 탈출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 천지와 같은 소녀들은 미라처럼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개념에 도달하고, 화연이처럼 자살하려는 도피심리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 2. 가정폭력과 자살 : 『킬리만자로에서, 안녕』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여로형 소설로 한 부모 가족의 주인공 윤성민이 자신의 여자 친구 진수희의 유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킬리만자로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소설은 케냐 여행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군상과 어울림으로써 주인공 성민이 엄마와의 갈등을 성찰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서브플롯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한 수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수희를 통해 소녀들의 자살 심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 나타난 수희는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녀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깊은 슬픔과 우울증이 나온다고 하였다.[4] 슬픔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이러한 상실감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슬픔이 삶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어떤 병리적인 상황도 아니며, 또 치료를 요하는 것도 아니다.

작중 인물인 수희는 엄마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과도하게 애완동물이나 곤충을 기른다. 수희는 애완동물에 고착되어 어린 아이로의 퇴행을 보여준다. 수희에게 애완동물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애착의 대상인 것이다. 수희에게 있어 애완동물은 “보호받고 사랑 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자,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결핍감을 충족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준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5]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한 외상에 따른 집착으로, 수희는 엄마의 상실감에 따른 삶의 무의미를 애완동물로 대체함으로써 리비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따른 소녀들의 자살은 수희처럼 어머니를 상실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어머니의 죽음과 이로 인해 실어증을 겪어야만 했던 소녀의 자살을 서브플롯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수희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입시 성적이 오르지 않자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된 수희는 자신에게 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깨닫는다. 결국 수희는 애완동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리려 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포기 상태에 이른다. 잠만 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부모와의 갈등이

호전되지 않자 수희는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한다

## Ⅲ. 결론

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간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소녀들은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김려령 작가가 쓴 『우아한 거짓말』의 천지는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화연의 관계적 공격을 받아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천지는 자기 개념을 투명 인간으로 여길 만큼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천지는 결국 도피 심리에 빠져 자살을 선택한다.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여로형 소설로, 애착 대상의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수희의 이야기가 서브플롯으로 나온다. 수희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처벌심리가 작동하여 자살에 이른다.

## ■ 참고 문헌 ■

- [1] 레이첼, 시먼스. 정연희 역, 소녀들의 심리학, p.60, 시그마프레스, 2011.
- [2] 레이첼, 시먼스. 정연희 역, 소녀들의 심리학, p.50, 시그마프레스, 2011.
- [3]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창비, p.156, 2009.
- [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p.245, 1997.
- [5] 성영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1, 2014.